

# 86년도 월간양계 게재 주요소식

편집부

다사다난했던 1986년을 보내며 한해동안 월간양계지에  
게재된 각종 중요소식을 간추려 보았다.....(편집자주)

## ● 양계산물 소비홍보 협의회 개최 (1월10일)

1986년도 본회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을 위한 소비홍보 자문 및 협의위원회가 1월10일(금)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위원 3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86년도 홍보사업 방향설정과 홍보비 거출, 홍보방법 등 능동적인 양계산물홍보사업에 전관련업체가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홍보협의회 회장에 오봉국 교수를 선임했다.

## ● 육계산업발전전략 심포지움 개최 (2월18일)

본회와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가 공동으로 주최한 육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이 2월18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육계산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그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한 심포지움에는 오봉국교수, Thompson박사(미국), 이계조회장, 세끼교수(일본), 김선중교수 등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본회와 가금학회 공동으로 이날 심포지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초생주 및 도계수수 보고제도 확립 △육계농가 지원 금융창

구 설치 △도계장 세제혜택 △간이계사포함 표 준계사설계 작성 △육계계열화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 ● 86년도 정기총회(2월20일)

1986년도 양계협회 정기총회가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월20일 전국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자리에서는 본회 제9대 회장으로 정태원(홍성농원, 홍성사료 대표)씨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부회장에는 차상진, 한 순, 장민기씨가 각각 선임된 바 있다.

## ● 사설연구기관 한국양계연구소 설립

국내 최초로 양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연구기관 한국양계연구소(소장 김영환)가 3월3일 설립되었다.

동연구소에서는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각종 연구자료를 세미나 등을 통해 양계업계에 2천년대 양계산업발전의 비전제시를 하고있다.

김영환소장은 20년간 양계, 사료, 약품업계에 종사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특히 채란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 축산물소비자교육 세미나 개최 (3월13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축산물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세미나가 본회 등 생산자단체 주최, 미국사료곡물협회 후원으로 3월13일 무역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축산물소비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기 적절한 세미나였으며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강사로는 미국 USFGC 축산물 소비자교육전문가 웨들여사와 박영인회장이 초빙되었다.

## ● 한국계란유통(주) 출범

낙후된 계란유통을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공급을 위해 생산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계란유통(주) (사장 명재운)이 3월18일 창립총회를 개최 업무에 들어갔다.

동사는 GP센터 설치 등으로 시중 계란유통 현대화를 유도하고 소비층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란의 원활한 공급과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 ● 종계전염성질병 세미나 개최(3월27일)

종계 전염성질병에 대한 세미나가 본회 주최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대표 윤지병) 후원으로 3월27일 개최되었다.

전국의 종계장에서 60여명이 참가한 세미나에서는 산란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을 중심으로 종계장에서 문제되는 각종 질병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 전국 양계산물 요리강습, 시식회 개최

3월~8월에 걸쳐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연 11회의 닭고기·계란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총 3천6백91명이 참가한 요리강습 및 시식회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와 공동주최했다.

새로운 요리법개발 보급은 물론 소비층의 새로운 인식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

## ● 오염계란에 대한 소비자고발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는 4월9일

세균에 오염된 계란의 위생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30만 양계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그 후 양계업계의 위생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위생계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상승되고 있는만큼 생산자들의 노력이 요청된다.

## ● 부업양계기준 상향조정

본회는 지난 4월 농가부업양계 규모를 3천수 이하에서(소득세법) 1만수 이하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86년 1월1일부터 농가부업 양계규모가 1만수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로써 86년 6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316,536호의 전국 양계농가중 0.39% 해당하는 1,235호만이 과세 대상으로 되었고 99.61%에 해당하는 315,301호는 농가부업일 경우 소득세가 면세된다.

## ● 비위생적인 닭고기유통 TV보도

5월에는 MBC-TV에서 비위생적인 닭고기처리 광경이 「카메라고발」에 보도돼 닭고기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울시는 TV방영후 밀도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닭고기 위생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 소비위축으로 생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 전국 순회 양계강습회 개최

5월14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채란계 생산성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 순회강습회를 실시하였다.

연인원 1천여명의 생산자가 수강한 강습회의 강사로는 폴·러슬러박사(미국), 박영인회장, 이규호박사, 정선부박사, 이영옥박사가 초빙되었다.

## ● IB세미나 개최 (6월4일)

86년도 처음으로 국내에서 분리 동정 확인된 닭 전염성기관지염(IB) 방역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6월4일 전경련회관에서 있었다.

화란인터넷의 학자를 초빙, 개최된 세미나는 전국 양계인들의 관심을 끌어 대단히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 외에도 전문가(학자, 연구관)를 초빙 학술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 미국 채란업계 시찰

미국 채란양계업계 시찰단(단장 오봉국)이 6월 7일 출국해 20일까지 미국 채란업계(농장, 유통현장, 소비구조, 계열화)를 돌아보고 귀국했다.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한 시찰은 본회 채란업 이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채란업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 ● 농수산부 중소기업육성과 신설

6월 9일 농수산부 기구개편으로 중소기업육성과 신설되었다.

중소기업육성에서는 양계·양돈 등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초대과장에는 이인형과장이 발령되었다. 정부의 양계업에 대한 배려가 한껏 돋보이는 듯하다.

## ●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탄생

동물약품협회가 6월말 해산되고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이 7월 1일부터 출범하였다.

동물약품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받게 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85년 11월 조합으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되어 이루어진 조치이다.

## ● 양계업계 수입자유화 파고 높아져

7월 1일부터 가금류 식용설육, 칠면조고기, 양계용 배합사료 등이 수입개방 되었다.

양계업도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게 되었다. 새로운 수요개발과 생산비절감 및 품질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양계산업이 되었다.

## ● 계란 1백만개 수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은 7월 하순 부터 소비위축으로 체화되어 계란값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 긴급 수매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8월 4일부터 계란 1백만개를 수매하였다.

8월 19일부터는 난가가 회복되어 수매비축을 중지했는데 수매비축이 난가 안정에 기여도가 커 적절한 운용이 요구된다는데 입을 모았다.

## ● 여고생 양계산물 조리실습 지원

미래 주부들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7월~11

월까지 배성여상, 명지여고, 명일여고 1,800여 명에게 닭고기요리 실습지원을 실시했다.

양계산물우수성 및 영양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실시된 지원사업은 닭고기에 대한 인식제고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 ●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설립추진

중소규모 배합사료 제조업자들은 8월 8일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이사장에 신촌사료(주) 김용태사장을 선출했다.

동조합은 농수산부에 설립 협조를 요청했으나 서류가 반려돼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 ● 제2회 전국 닭요리 솜씨대회 (9월 9일)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새로운 닭고기요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제 2회 닭고기요리 솜씨대회가 9월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

521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110명으로부터 139점의 요리가 출품돼 '닭고기 건포'가 농수산부장관상(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대회를 통해 닭고기소비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큰 보탬이 되었다.

## ● 닭고기 소비위축으로 육계값 하락

9월들어 아시안게임에 의한 기대심리로 생산량증가와 조기귀가, 포장마차 환경정비 등에 기인 음식점 소비격감으로 닭고기가격이 급하락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본회 육계분과 위원회에서 긴급 수매비축을 건의했다.

또한 전국에 초생추 입식자제를 호소하고 불황 장기화에 대비 생산자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 ● 서울계란가공(주) 부도사건

서울계란가공주식회사가 9월 30일 부도를 내 양계업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희구)에서 우선 인수 운영키로 하고 주거래은행에서 양해를 받아 조합측은 10월 1일부터 운영에 참여 현재는 정상가동하고 있다.

동조합은 전국계우회연합회, 조합원 등에 협조를

호소, 계란가공회사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 ●마니커의 집 개설

닭고기 대중화시대를 위해 천호인티그레이션(대표 홍종면)에서는 10월18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상가에 닭고기 직영점 마니커의 집을 개설했다.

인스턴트시대에 물만 부어 끓여먹을 수 있는 양념이 가미된 닭고기볶음이 등 13종류의 닭고기 제품이 개발되어 절찬리 판매중이다.

### ●양계산물 우수성표어 현상공모

10월중 닭고기·계란 우수성표어 현상공모에 전국에서 1,482건의 표어응모작이 쇄도, 국민들의 양계산물에 대한 관심도를 표명했다.

심사위원 100여명이 1개월 이상의 엄정한 심사로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 외 20점이 선정되었다. 본회는 전국 응모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87가계부를 제작 전달하였으며 본 공모를 통해 닭고기·계란의 관심도는 전국적으로 한껏 고조된 바 있다.

### ●전국계우회연합회 자구책 결의문 채택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구본영)는 11월7일 열린 정기 월례회에서 스스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닭수수 증가 억제 △12월 병아리 입추 중지 △양계조합지원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저난가 및 육계가격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으로 우려를 느껴 자구책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 ●양계산물 소비 홍보 협찬금 1억여원 거출

금년도 본회 중점사업인 양계산물소비홍보사업 협찬금이 1억1백46만8천원(현물협찬, 협찬자 집행금 포함) 거출되었다.

이는 본회 현금입금액 7천7백여만원, 현물 및 협찬자 집행액 2천4백여만원이며 각도지부 사업으로도 1천5백여만원이 집행되었다. 홍보사업 원년도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

## 〈사 랑 Ⅱ〉

박 선 미

(천호인티그레이션)

저을바다

차가웁다

마음이 차다

한줌 흙으로

메워지잖는

깊음,

마음속에 깊다

파도 앞에 반복되는

역사,

갈매기 울음도

덮지 못하는

넓음,

마음속에 넓다

타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저을바다를

다 덮는다

차가웁다

마음이

저을바다에 차다